

☞ 오늘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작약은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꽃이 크고 탐스러워서 함박꽃이라고도 한다. 꽃은 5~6월에 피며, 뿌리는 약재로도 사용된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 1실

## 개회예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절감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 우물 안고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삶은 만물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더불어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의무이자 권리가기에  
지금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수준이 높아 보여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고 완성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행하신 부활 생명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해방의 능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십시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함께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인격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나, 중심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생명의 영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방식에만 마음이 쏠려있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여지없이 훼손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폭력이 만연된 세상에 휩쓸려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이런 시대정신에 당당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은 사람의 자세로 이웃들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쏟아낸 생각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2천 년 기독교 예배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99장 (진리를 보이소서) ... 다함께**

E. R. Sill

나운영

세마치

1. 진성 리를 보이 소 서 캄 한 길 떠  
2. 성령 랑을 주 소 서 캄 야 나 도 시  
3. 사 랑을 주 소 서 캄 이 세 상 어 디  
4. 평 화를 주 소 서 캄 움 이 끝 나

나 나 나 고  
나 주 모 상 빛 에 살 도 록  
나 주 미 음 신 성 전 되 도 록  
고 은 세 상 다 한 틈 맘 없 도 록

(길 떠 나)  
(도 시 나)  
(어 디 나)  
(끝 나 고)

진성 리를 보이 소 서 -  
성령 랑을 주 소 서 -  
사 랑을 주 소 서 - 아 멘  
평 화를 주 소 서 -

\*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구조인 삼위일체 개념의 하나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진리는 정말 참된 것, 즉 생명의 실재(reality of life)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생명의 실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 말 씬 예 전

### 설교전기도 ... 다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혼의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하기는 하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며, 장황하기는 하나 허황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1독서 사도행전 16: 9-15 ... 박수진 집사

### 성시교독 시편 67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주님이여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의얼굴 비추시어 복을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세상이 주의뜻 알게하고 온나라가 주님구원 알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민족들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민족 주님에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세상이 즐거워서 기쁜찬양 하는것은 우리주님 공평하게 세상통치 하심이라  
주님이여 민족들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민족 주님에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풀과나무 씨와열매 제땅에서 자라나니 주하나님 우리에게 복을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내려 주시리니 땅끝까지 온누리여 우리주님 경배하라

### 제2독서 요한계시록 21: 22- 22: 5 ... 박수진 집사

### \*제3독서 요한복음 14: 23-29 ... 박수진 집사

###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함께



### 설교 예수의 평화 ... 박재진 목사

### 설교후기도 ... 설교자

주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궁극적인 평화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히려 갈등과 분쟁만 더 늘어납니다. 예수의 평화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며, 나아가서 세계 평화로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찬송 411장 (아 내 맘속에) 1,3절 ... 다함께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헌금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1절 ... 다함께

### 중보기도 ... 목사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 \*마침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4절 ... 다함께

###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부활절 여섯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평화를 말과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축복기도 ... 목사

###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 반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사도신경해설 반, 신학과 철학 반, 기도와 교제 반, 청소년 반
- \* 다음 주일(6월 2일)은 대구샘터교회 설립 1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헌금 320,000원(주일헌금: 270,000원 통장헌금: 50,000원)  
(2019/5/19)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5,6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부활절 6주	5/26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박수진	이기령
부활절 7주	6/2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채진진	윤혜정
성령강림주일	6/9		2층 세미나1실	정용섭	윤동희	박수진
성령강림후 1주	6/16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고중홍	오미영
성령강림후 2주	6/23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신창석	양혜선

5월 19일 설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발췌

**값없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숨을 쉬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더 존속하려면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삽니다. 더 고급한 삶은 영혼과 관련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불안과 공포, 공황장애를 겪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삶이 파괴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생명을 값없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가등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주고받으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사회과학의 몫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지만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값없이 가능한 것을 손에 꼽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몇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숨쉬기가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차원인 숨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받지 않고 생명의 원천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다가 이제는 찔레꽃이 만발합니다. 그 향기를 우리는 값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선택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저는 교황과 독대하기보다 아카시아와 찔레꽃 향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끝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에 저는 서울샘터교회 수련회에서 ‘나는 걷는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걷는 행위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현생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직립인)라는 유인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느끼고 중심을 잡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손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나서거나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싸까지 삼보일배 순례를 나서는 이유도 걷는 행위가 곧 구도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걷는 데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런 성서 전통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값없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정 경제와 수도권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사회 경제가 됩니다. 돈이 없어도 먹고 잠자고 입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의 샘물을 무시하고 값을 많이 주어야만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선입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선입견이 숙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티브이 쇼핑물에 터죽대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는 생명수 샘물을 맛볼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려면 돈을 모으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행한 느낌이 들고, 때로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심판은 이미 지금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에 영혼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돈으로 자기 인생을 가꾸는 데만 신경이 집중된 사람은 이미 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 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낙오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